

다  
시  
는

돼  
지  
파  
동  
을

겪  
지  
말  
자

첫째

생산자단체의  
힘을 키우자.

둘째

정부의 관측  
홍보를 믿자.

셋째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하자.



조진형  
(본회 부회장)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의 발달은 근래 10년 내외의 급격한 발달이었다.

1970년대의 급격한 경제 발전의 흐름을 타고 국민생활의 안정속에서 식생활이 개선 되면서 육류소비의 많은 증가와 증가될 것이라는 축산인들의 예견에 의하여 양돈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시설면에서 볼때 재래식 돼지우리에서 차츰 돈사의 바닥콩크리트를 거쳐 물주는 것도 자동으로 장치하고 현대식 돈사는 사료급이도 자동으로 하고 돈분제거 작업까지도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위생시설면에서도 사람이 기거할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설비하여 놓고 육질 개선면에서도 국립종축원을 비롯하여 민간종축장이 선두에서 미국, 스웨덴, 캐나다, 일본등 선진국으로 부터 종돈을 수입하여 품종을 개량하여 국내 많은 농가에 보급하므로써 재래식 고기는 비계가 많았었으나 현재는 비계도 적고 고기도 맛이 좋으며 사료효율도 많이 높아진 좋은 육질로 개량이 되었다.

그러나 개선되지 못하고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있으니 이것은 주기적으로 오고있는 돼지파동이다.

이제는 노력하여 다시는 파동을 겪지말도록 생활화하여 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첫째, 양돈협회의 힘을 다함께 키워야 하겠다. 둘째, 양돈인 모두는 정부를 믿어야 되겠다. 셋째, 생산조절을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양돈인이 모두 56만호나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양돈산업의 흐름이나 정책의 변화나 통계등 모든 면에서 알수도 할수도 없다.

56만호가 생산자 단체를 정점으로 힘을

합치면 모든것이 나의 뜻대로 될수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격언이 있듯이 회원 모두가 협회를 키우는 뜻으로 조금씩 협회비를 내주고 협회는 모든 회원으로부터 정확한 통계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돈육 수요공급을 정확히 판단하여 전양돈농가에게 생산을 증가 또는 감소 하여야 된다는 관측홍보를 하여주고, 회원은 협회를 믿고 욕심부리지 말고 따라갈때 항상 안정된 양돈업을 해나갈수 있을것이다.

정부를 믿자는 말은 83년도만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생산과잉이 되어 양돈불황이 올것이라는 관측홍보를 82년 하반기부터 계속하여 왔으나 우리 양돈인들은 정부의 관측홍보를 믿지않고 계속 어미돼지 증식을 하여서 오늘과 같은 파동이 닥치게 된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급선적으로 하여야 할 일이 몇가지 있지만 더 급한 것은 모든 양돈농가가 전염병으로부터 마음놓고 돼지를 기를수 있도록 예방약 개발에 예산을 아끼지말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전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는 예상하는 대로 생산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역파동이 오지 않을것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입장에서 돼지를 정적두수 기르다가 전염병이나 한번 쓸고나면 돈육수급상에 큰 혼선을 빚게 되므로 양돈농가들로부터 관측홍보의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하튼 우리 양돈농가 모두는 생산자 단체인 양돈협회를 키워 협회를 정점으로 힘을 합쳐 우리의 총 화합된 양돈시책을 정부에 반영시켜 정부에서 앞으로 86년도 아세안 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을 놓고 급격히 소비증가 하여나갈 돈육공급에 좀더 좋은 돈육을 마음놓고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되며, 정부를 절대 믿는 56만 양돈농가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자치적으로 생산조절하여 다시는 돼지파동을 타지 말자.

